구술자료 상세목록 (구술개요 포함)

사업명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사업개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동 일대는 염전-공업지대-주거지대로의 변화하는 큰 변화가 진행된 지역임. 이 중 1960-1990년대에 거주 및 근무한 동양제철화학 노동자 및 관리자, 인근 공장의 관계자, 지역주민, 소상공인, 관련 지역사회 인물 등으로부터 인근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증언을 듣고 기록하고자 함.					
구술자명	이재동	**성 별**	남성		**출생연도**	1975년
면담자	조연희	**소 속**	학산문화원		**검독자**	
면담장소	학산문화원 동아리실 2		**면담지원**	송미정		
면담 일시	2025 년 8 월 16 일		**회 차**	1	**시 간**	1시간 14분 18초
자료번호						
구술 개요	구술자 이재동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인천 용현동의 대우전자 공장 내 냉장고 연구소에서 양문형 냉장고 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입사 당시 회사는 IMF 이후 대우 사태 여파로 워크아웃 상태였으나 연구개발과 생산은 유지되었고, 사명 변경(대우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과 사업부 매각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조직의 불안과 '과거의 영광'에 대한 자부심이 교차하는 분위기를 체감했다고 증언한다. 또한 공장 주변의 철길, 개천(학익천) 환경, 인하대 후문·연수동 등 회식/생활권 동선, 통근버스·식당·학자금 등 당시 대기업 수준 복지의 유지, 시제품(샘플) 제작·테스트·폐기 절차 및 직원 배포, 노조의 역할 등 현장감 있는 회사 생활의 구체적 장면을 제공했다.					
주요 색인어	대우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워크아웃, 구조조정, 사업부 매각, 냉장고연구소, 양문형냉장고, 클라쎄, 시제품, 유공저유소, 철길, 학익천, 개천, 회식문화, 인하대후문, 통근버스, 사내식당, 노조, 대형TV, 결속, 새인천풀장, 동양화학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사전면담 - 미추홀학산문화원 박성희 사무국장과 학교 동문 관계(선후배), 동아리(탈춤반) 인연 및 연례 모임 전통(75학번~94학번). - (구)대우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용현동 공장(냉장고 연구소) R&D 근무: 2001년 입사 ~ 2007년 이직. - 현 직장: HD현대인프라코어(화수동) 근무(2007년~), 굴착기 설계 업무 / R&D 센터(판교) 출퇴근 경험 언급. - 인천 중심으로 거주 지속(청학동·옥련동 등 생활권 언급), 고향은 경북 청도. - 입사 전 1년 정도 타 회사 근무 후 대우전자 입사. 사실상 첫 직장으로 기억.	00:00:05 ~ 01:14:18	

- 입사 당시 회사는 워크아웃 상태, “다시 일어서보자”는 재건 분위기 속 신입 채용이 이루어짐. - 2007년 이직 전후로 구조조정이 몇 차례 있었고, 고용 불안이 커지며 젊은 직원들은 이직을 고민하는 분위기. - 용현동 공장 부지는 압축기 공장과 냉장고 생산 라인이 함께 존재. - 정문 앞 철길이 있어 화물열차가 지나가는 장면을 목격(동양화학 방면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추정). - 당시 홈플러스 일대는 주택가였던 기억. - 공장 인근에는 개천(학익천)이 있었고 비가 오면 물이 올라오는 등 환경이 좋지 않았으며 악취(시궁창 냄새) 경험 언급. - 고속도로에서 보이던 초록색 물이 고인 공간(저수지처럼 보이는 시설)에 대한 인상이 강하게 남아 있음. - 점심·저녁 등은 사내식당 이용이 기본이었으나, 외식 시 철길 따라 식당/짜장면집, 인하대 후문, 연수동 대동월드 인근 상권, 송도유원지 일대 등을 이용. - 조개 고개 인근의 홍어집 밀집, ‘옛날 장터순대(빨간 순대국밥)’가 대우전자 직원들에게 유명했던 기억(현재 위치가 사라져 아쉬움). - 냉장고 연구소 인원은 약 100~150명 규모로 기억(1층 상업용 쇼케이스 팀 50~60명, 2층 냉장고 개발팀 100명 내외 언급). - 개발은 디자인팀-설계팀 협업으로 진행: 플라스틱 모형 제작→기술 구현 가능성 검토→최종 설계안. - 출시 전 100~200대 수준의 시제품 생산 후 고온/저온·도어 반복 개폐 등 내구 테스트 수행. - 담당 업무는 양문형 냉장고 중심으로, 내부 선반·서랍·도어 포켓 등 인테리어/내장 부품 개발(강도·정숙성·하중 등 실사용 조건 고려 강조). - 시장 클레임 발생 시 현장 확인 및 트러블슈팅 반복. - 연구소 뒤 공터에 폐기 시제품이 쌓이고, 특정일에 연구소 전 직원이 폐기장 이동 작업을 수행. - 이때 지원팀 여직원이 작업을 주도하며 직급과 무관하게 지시하는 장면, 작업 후 막걸리 회식으로 이어지는 조직 문화 에피소드. - 시제품 일부는 직원들에게 제공되어 실제 사용 후 문제점 피드백을 받기도 함(갈라짐 등은 테이프로 보수하며 사용). - 생산 과정의 A/B/C급 제품을 연 1회 직원/지인에게 시중가 20~30%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친척들에게 추천해 호응		

을 얻었다고 언급. - 워크아웃 상황에서도 일상 복지는 대기업 수준을 상당 부분 유지 (사내식당 운영, 통근버스, 자녀 학자금 지원 등). - 식당 및 버스 운영이 외주가 아니라 회사 내부 인력 중심이었던 점을 기억. - 노조는 임금 지연 등 이슈에서 역할을 했으나, 구조조정에서 노조 인력이 우선 타깃이 되는 현실도 목격. - 2002 월드컵 시기 회사 로비 대형TV로 응원했고, 젊은 직원들은 광화문 응원도 참여. - 조부모상(청도) 때 동료들이 직접 내려와 함께 머물며 월드컵을 보고 도와준 기억을 통해, 당시 팀/동료 관계의 끈끈함을 강조. - 2007년 이직(가전→중장비 설계로 이동). - 2009년 결혼, 옥련동 등 인근에서 신혼 생활 언급. - 회사는 다르지만 친정 같은 마음이 남아 있고, 대우 브랜드의 쇠퇴가 브랜드 싸움과 투자 여력의 문제와 맞물렸다고 평가.		

공개여부	■ 전체 공개 □ 전체 비공개 □ 부분 공개
활용동의	■ 동의함 □ 동의 안 함 □ 조건부 동의
특이사항	